

수사적 언어의 허구성 폭로한 수사학자 마르크스

수사학의 관점에서 마르크스 저작을 다시 읽는다

박우수 | 충북대 영문과 교수

마르크스는 아이러니와 패러디 등의 기법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념에 물든 자족적인 부르주아들을 자기기만에서 흔들어 깨우는 실천적인 수사를 구사한다. 문학이 정치와 별개가 아니듯 마르크스에게 글쓰기는 동시에 언어적 사건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독서를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마르크스는 수사학이 불필요한 투명한 사회를 위해 반수사의 수사학을 구사한 힘의 문학의 대가였다.



수사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태도는 대체로 적대적이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사학이 불필요한 현실의 투명성이다.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에 의해 외양과 실재가 이분화되고, 이런 구분으로 야기된 수사적인 장식과 조작 등을 넘어서 진실이 그 자체로 맨 얼굴을 드러내는 공산화된 사회에서 수사학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사학자들을 진리가 아니라 의견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한 플라톤과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수사적 설득은 힘이나 폭력을 대신하는 싸움

과학, 자연스러움과 짝짓는 반면, 수사학은 드러나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 이데올로기, 인위적인 것 등과 연결시킨다. 그에게 수사학이란 시적인 사고와 동떨어진 것으로 당위적인 실재를 짚은 안개처럼 감싸 안아 그 윤곽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마르크스에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 불투명한 안개층을 걷어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가 아놀드 루게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듯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이 문제다. “의식의 개혁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의식을 밝혀 주는 데 있으며, 자신에 대한 꿈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의 의미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데 있다.” 이런 과정은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다. 의식이 깨어나기 전의 인간이 죄인이라면 미몽에 사로잡힌 부르주아들은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인 고해성사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일찍이 학창시절에 아버지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시학과 수사학을 대비시켜 시학을 당위,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기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반수사적인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학이란 언어, 혹은 좀더 광범위한 기호체계를 통해서 의견을 통일하거나 구성원들 사이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수사적 설득은 힘이나 폭력을 대신하는 싸움이다. 마르크스는 현실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과 의식의 개혁이라는 언어 싸움을 위해, 빛과 어둠의 비유를 주도적으로 사용했고, 기독교적인 것 혹은 성스러운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의미 속으로 끌어들이는 패러디, 소크라테스식의 아이러니, 기존의 왜곡된 가치와 질서를 바로 세우거나 뒤집어 엮는 전도 등 다양한 문체를 줄기차게 구사했다.

수사학자로서 마르크스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처지와 이해를 분석한 부분이다. 수사학은 말하는 사람(에토스), 청중(파토스), 말의 내용(로고스)으로 이뤄지는데, 마르크스는 잘못된 말의 내용을 분석하거나 설명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못된 내용이 생겨났는가에 천착한다. 여기서 그는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처지, 혹은 이해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혀낸다. 이런 방법은 그가 1856년 《자유보》란 신문에 기고한 〈18세기 외교비사〉란 일련의 기사에서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시기를 넘어서 다른 역사적 시기와 비교해야만 한다”고 발언한 것과 상통한다.

문체가 곧 인격이라는 뷔퐁의 격언처럼 마르크스는 말의 내용과 말하는 사람의 처지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독일 이데올로기》(박재희, 청년사)에서 누누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배 계급의 생각이 매 시기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사회의 물질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이 동시에 지적인 힘을 지배하는 계급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지배계급이 생겨나면 이 새로운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견해와 이해를 전 사회계급의 견해와 이해로 제시해야 되는, 즉 자신들의 계급이해에 보편성을 부여해야만 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는 실천적인 수사학을 필요로 한다. 개념은 언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분석하는 수사적 장치로 아이러니와 패러디 사용해

언어란 인간의 의식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인

데, 특정 계급의 이해와 처지를 보편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하는 한 언어는 현실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도구다. 그러나 각 개인의 노력과 이해가 사회 전체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는 사회가 되면 불투명성을 조성하는 시장과 같은 사회제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거래를 덮고 있는 가식과 위장이 불필요하게 되고 투명한 인간관계에 대한 염원이 “부분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믿는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란 표현이 암시하는 것처럼 투명한 사회가 되더라도 수사적인 언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언어의 조작이 불필요한 사회가 되기 전에는 마르크스 역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수사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수사적 언어의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 마르크스 자신도 수사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는 말하는 사람의 처지와 말의 내용을 동시에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도 그 자신이 처한 바는 예외로 하고 있거나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날의 해체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마르크스가 체계로서의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데 줄곧 사용하는 수사적 장치는 아이러니다. 아이러니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처럼 A로 출발해 A가 아닌 것으로 귀결되는 극적이며 변증법적인 수사법으로,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파악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회피한다. 그러면서도 구성요소들 간에 주도적인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데 마르크스에게는 프롤레타리아의 역할이 바로 그러하다. 아이러니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종합적인 조망에서 나온다. 따라서 흔히 지적인 냉소주의나 풍자, 조롱으로 떨어질 위험 역시 다분하며,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엘리트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러니는 극적인 급변을 포함하는 사고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나 질서를 전도하는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동일시함으로써 현실을 기괴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왜곡된 현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해 그는 아이러니를 사용한다. 《공산당 선언》(남상일, 백산서당)에서 그가 주장하듯 중세적인 착취가 종교와 정치적인 환상이라는 베일을 썼다면, 자유 무역에 의한 착취는 잔혹하고 뻔뻔하며 직접적이고 “본색을 드러낸

벌거벗은”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여기서 사용하는 “벌거벗은”이란 표현은 공산 사회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아이러니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역시 같은 글에서 그는 계급투쟁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름에 따라 지배 계급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해가 폭발적이고 번쩍이는 성격을 띠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성경》 계시록의 표현을 빌린 것으로, 사회주의 건설과 기독교식 천년 왕국의 도래를 동일시한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기독교에 대한 패러디 충동을 즐기치게 나타낸다.

‘반수사적 수사학’ 구사한 힘의 문학가

아이러니와 더불어 마르크스는 일상의 현실에 자족하는 부르주아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우리들에

게는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을 통해서 친숙하게 된 ‘낯설게하기’ 기법을 빈번하게 동원한다. 예를 들어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일은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나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책상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감각적인 것을 초월하여 땅에 발을 내딛고 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물구나무를 서고 나무로 된 그 열빠진 머리에서 기괴한 생각들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이것은 그 책상이 스스로 알아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상품의 논리로 모든 것이 환원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은 그야말로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돼 인간관계를 위협하고 지배한다. 마르크스는 아이러니와 패러디 등의 수사적 기법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과 관념에 물든 자족적인 부르주아들을 자기기만에서 흔들어 깨우는 실천적인 수사법을 구사한다. 그에게 문학이란 정치와 별개의 것이 아니듯 글쓰기는 동시에 언어적 사건이다.

선언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마르크스의 저작들을 읽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독자나 청중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당 선언》은 미래를 지향하고 청중, 혹은 독자의 편익(행복)을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연설문의 모범이다. 또한 이 글은 격자 구문, 점층법, 어구 반복, 병행 어법, 대조법 등과 같은 수사법을 정교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조건’이란 단어를 16회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관념의 ‘창조성’을 부정한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독서를 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크스는 수사학이 불필요한 투명한 사회를 위해 반수사의 수사학을 구사한 힘의 문학의 대가임을 알 수 있다. ■

박우수 교수는 현재 충북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수사학과 문학> <수사적 인간> <수사학의 말의 힘> 등의 저서와 <수사학의 철학> <포스터스 박사의 비극> 등의 역서를 펴냈다.